

한국 · 미국 · 독일의 비트코인 활용 현황과 공유가치창출에의 함의 탐색

이경미* · 고은희** · 주소현***

인터넷과 IT기술의 발달은 핀테크라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와 P2P거래를 등장시켰고, 소비자의 편의성과 새로운 대안화폐의 요구에 맞춰 비공식적 화폐인 비트코인을 출현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독일, 한국의 문헌과 기사를 활용하여, P2P방식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활용현황과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함의를 탐색하였다. 비트코인 거래가 활발한 미국과 독일의 이용 사례를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 현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공유가치창출에 비트코인이 시사하는 바는 세 가지이다. 첫째, 변화하는 소비가치에 따라 비트코인은 협력적 소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소비가치는 소유에서 공유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가치에 비트코인의 특성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24시간 후원금 지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를 최소화 해 지원사용자와 지원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비트코인은 사회경제적 가치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액결제가 가능한 비트코인을 통해서 소액 콘텐츠 시장의 확장과 소상공인들의 판매영역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상인들은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없앨 수 있으며, 비트코인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벤처기업의 등장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가치창출이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 간 P2P거래의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거래의 투명성 및 이중 지불 방지, 사용자의 자유로운 이탈과 참여는 시장에서의 평등성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비트코인은 글로벌 거래 결제수단으로써의 비중은 미미하지만, 수수료를 축소하려는 가맹점들을 중심으로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향후 금융소비자는 비트코인을 통한 참여적인 금융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적극적 생산자로서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이 공유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계의 새로운 투자처 및 서민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써 비트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핵심단어: 가상화폐, 비트코인, P2P, 공유가치창출, 핀테크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E-mail: amy.lee.330@gmail.com,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석박사과정, E-mail: gonhee727@naver.com, 공동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E-mail: sohyunjoo@ewha.ac.kr, 교신저자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서로 다른 두 분야의 결합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이다. 핀테크는 점포 중심의 은행에서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로의 시장이동을 통해 소비환경이 변화하였고, 기술의 빠른 변화속도로 서비스 범위가 넓혀져 소비자들의 편의성에 맞춰 시장이 조성되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이우석·홍보경, 2015).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및 핀테크 산업 종사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페이팔(Paypal)과 하나은행의 제휴를 시작으로 해외 핀테크 기업 역시 국내로 진출하여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의 성장을 통해 국내에서는 핀테크 육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해 나가고자 정책 및 규제 변화 추구하고 있다(박재석 외 2인, 2016). 이렇듯 핀테크를 통한 지속적인 금융권의 발전 및 변화는 화폐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애플사의 CEO 팀 쿡은 2015년 11월,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Trinity College) 강연에서 다음 세대는 지폐가 무엇인지 모를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조선비즈, 2016.01.26). 그의 발언은 미래의 금융거래가 직접적인 지폐가 아닌 전자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시사한다. 또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해 달러 중심의 글로벌 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게 되면서 새로운 화폐의 등장을 기대하게 되었다(임현진, 2015).

현재 인터넷의 발달과 IT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손쉽게 상품의 구매가 이뤄지는 ‘스마트 결제’는 하나의 트렌드로 확산되면서 비공식적인 가상 화폐의 등장과 발전을 야기하게 되었다(이현정, 2015). 가상화폐는 지폐의 무용성을 논한 예측을 조금씩 현실화시키고 있으며 현재 기존 화폐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점을 잠식시켜줄 수 있는 대안책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중심에 2009년 첫 등장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있다. 여러 가상화폐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기존에 존재한 사이버 머니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의 대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비트코인이 화폐발행자인 중앙은행과 화폐거래 중개자인 시중은행의 개입 없이 발행과 거래를 가능케 하였기 때문이다(김자봉, 2014). 또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국가 통화의 대안으로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활용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거래소와 비트코인 결제가능 온·오프라인 상점, 수업료 지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David, 2014). 현재 비트코인은 가상 통화의 약 90 %를 차지하

고 있고 전 세계의 비트코인 이용자 수는 1200만 명에 육박한다(조선비즈, 2013.03.04). 또한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없다는 매력적인 장점으로 인하여(David, 2014), 2016년 말까지는 14만 명 이상의 상인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Coindesk, 2016.01.28). 이러한 전망과 더불어 비트코인이 앞으로 새로운 경제모델과 세계시장에 더 많은 문화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NYtimes, 2015.09.21).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의 특징을 이해하고 비트코인이 향후 금융소비자의 경제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공유가치 창출의 의미를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의 특성과 시사점등을 살펴본 문헌이 발표되었으나 공유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살펴본 연구는 없으며 해외 사례를 다양하게 비교하여 살펴본 문헌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문헌을 통하여 검토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비트코인 사용 현황과 비교하며, 공유가치 창출에의 관련 의미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이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의미를 통해 공유가치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향후 비트코인에 대한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연구의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연구배경

2.1 P2P(Peer to Peer)방식을 통한 새로운 금융거래 환경

소유하는 가치를 넘어 사용하는 가치가 중요시되면서 다양한 공유경제(Shared economy) 모델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하는 협력적 소비의 공유경제와 기업, 정부, 시민, 노동자, 고객, 동료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발전하는 공유경제 모델 등이 제시되고 있다(안명옥·하윤희, 2012). 또한 공유경제의 특성을 가진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하였는데, P2P거래를 활용한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P2P 방식은 개인 간 자원 공유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의 한 종류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각 참여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제공한다(Böckmann, 2013). 온라인 특성을 이용한 P2P 거래 시스템은 탐색비용을 줄이고 유통과정을 단순화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이자 생산자이기도 한 콘텐츠의 사용자들을 거래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이익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효율적이다(전병준, 2014).

송경석(2014)은 금융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공유경제 형태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유경제에서는 기존 소유경제에서 불가능하였던 희소한 거래가 가능하며 재화나 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비충성고객의 욕구도 충족 시켜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소액결제 분야에서 새로운 금융거래모형과 금융상품이 생겨날 수 있으며 이는 저개발 국가로도 확산 가능할 것이라 보았다. P2P를 통한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비트코인은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거래자간 직접적으로 자금을 거래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조희정 외 2인, 2015). 또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비트코인 도입을 시도하여 기존 금융거래의 높은 수수료와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인과 소비자 간의 혜택을 공유함으로써 공유가치창출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비록 현재는 비트코인 도입의 초기 단계로 신뢰 및 안전성 구축 미흡과 불법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과제들을 지니고 있지만, P2P기반의 온라인 개방형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비트코인은 기존의 금융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 비즈니스모델을 제공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상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들의 서비스 개선과 거래 수수료 인하 등의 부수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2.2 공유가치창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은 마이클 포터(M. E. Porter) 교수와 경영 컨설턴트 마크 크레이머(Mark Kramer)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유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Porter & Kramer, 2011). 공유가치창출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상품을 창출해야 하며 가치사슬의 생산성에 대한 재 정의와 지역기반의 경제창조 단위가 구성되어야 한다. 공유가치의 창출은 기업과 사회가 서로 협력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의 제한이 없다(박병진·김도희, 2013).

자본주의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유가치의 창출에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소비자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써 공유가치창출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의사결정자이자 주체이다(나종연 외 4인, 2014). 이영일·김영신(2015)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공유가치창출의 사회적 의의와 소비자의 역할 및 영향력을 조사 분석하였는데, 공유가치창출에는 소비자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공유가치는 소비자, 기업, 사회 모두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경제와 사회의 건강한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더불어 인터넷과 온라인의 발달은 사회공동체간의 연결성을 높여주며,

각 구성원의 사회적 활동의 투명성을 증대시켜주는 환경을 제공해준다(전병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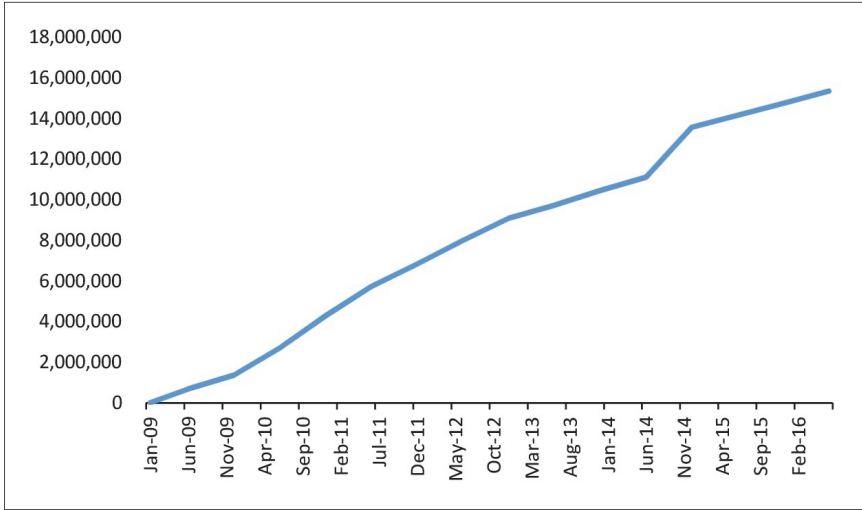
2.3 비트코인의 의미 및 문제점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나카모토 사토시(Nakamoto Satoshi)라는 가명의 인물에 의해 개발된 가상화폐이다. 그는 2016년 5월 2일 영국의 BBC방송, 이코노미스트에 출연하여 정체를 밝혔는데, 컴퓨터 공학자 출신의 호주 기업인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인물로 비트코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체를 밝히게 되었다고 하였다(경향신문, 2016.05.02). 비트코인은 P2P방식의 분산적인 디지털 암호화 통화로(King, 2014),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중앙 통제 기관이 없고 채굴(mining)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발행되기 때문에 그 양이 정해져 있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기존 화폐와 차이를 보인다(Nakamoto, 2008).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 혹은 단체를 채굴자(miner)라고 일컬으며, 이들은 복잡한 수학적 암호를 풀어 그 대가만큼 비트코인을 얻는다.

〈그림 1〉은 지금까지 채굴한 비트코인의 총 개수인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을 표시하는데, 2009년 1월부터 꾸준히 채굴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비트코인이 처음 설계될 당시 총 2100만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고 2016년 6월 현재까지의 채굴량은 15,713,450 BTC이다. 〈그림 2〉는 주요 비트코인 거래소의 평균 비트코인 시장가격을 미국달러와 대비하여 나타낸 것으로 비트코인의 평균 시장가격은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 2013년 최고치를 찍었으나 2014년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하나인 마운트 콕스의 파산에 의한 하락세 이후 계속하여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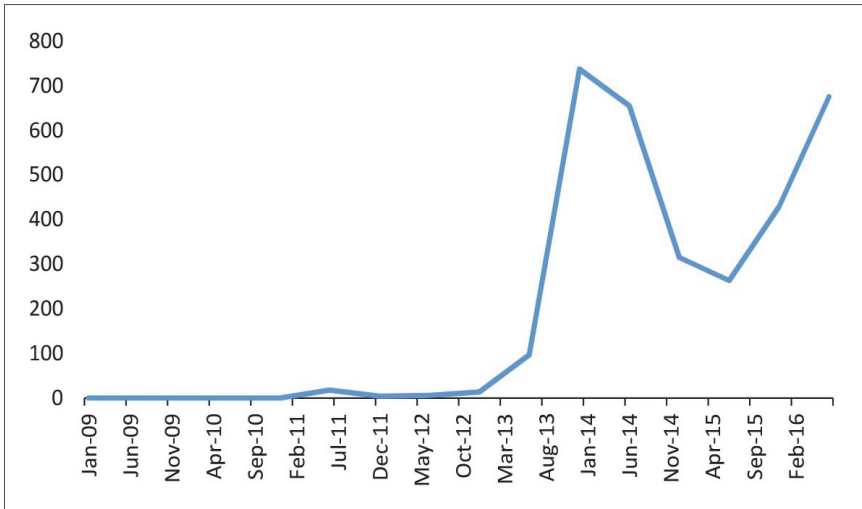
비트코인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비트코인은 자발적 네트워크로 형성되고, P2P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갖는다. 총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 비트코인은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분산장부 관리 시스템으로 새로운 거래가 일어날 경우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모든 참여자의 장부를 똑같이 업데이트 및 비교할 수 있어 신뢰성이 높고, 거래내역이 모두 공개되므로 투명성을 갖는다(조희정 외 2인, 2015). 또한 사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개인정보 보호 기능도 우수하다.

비트코인은 금융시스템의 접근성이 없거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저개발 국가 소비자 및 영세 상인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적을 초월한 발행 및 유통시스템으로 환전할 필요가 없고 신용카드와 같은 물리적인 도구가 없어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직접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은 비트코인이 유용한 교환 및 지불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현정, 2015).



출처: 블록체인인포 <http://blockchain.info/ko/charts/market-price>(2016년 7월 기준)

〈그림 1〉 현재 네트워크상의 비트코인 누적 채굴량(2009년 1월~2016년 6월)



출처: 블록체인인포 <http://blockchain.info/ko/charts/market-price>(2016년 7월 기준)

〈그림 2〉 달러 대비 비트코인 평균시장 가격 (USD)(2009년 1월~2016년 6월)

하지만 비트코인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그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익명성 보장이 자금세탁이나 마약거래, 탈세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조희정 외 2인, 2015). 비트코인을 이용한 투기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비트코인의 투기를 통해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우려는 해킹과 사이버 테러의 위험이다. 전자화폐는 해킹을 당하면 복구가 어려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6월 20일 마운틴 곱스사(Mt. Gox)의 데이터베이스 해킹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크게 하락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트코인의 이용이 줄어들게 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김태오, 2013).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슈 중에서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과세 문제이다. 현재 유럽은 비트코인을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결정하였으나 일본에서의 가상화폐는 과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세법적인 분석과 규제 등 정부의 관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경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매매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의 과세여부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비트코인 거래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이강, 2014).

2.4 비트코인 평가 선행 연구

비트코인에 대하여 평가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연구들과 부정적으로 평가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Grinberg(2011)는 비트코인과 비슷한 전자화폐들(e-commerce), 소액결제(Micropayments), 게임머니에 대해 소개하고 비트코인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비트코인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통화로 소액거래와 가상세계의 상거래에서 유용하고 훌륭한 대안화폐라 평가하였다. Eikmanns & Sandner(2015)는 Change Tip이라 불리는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플랫폼을 통해서 210명의 얼리어답터를 대상으로 비트코인의 성장잠재력을 실험하였다. 그 결과 성과에 대한 기대(Performance Expectancy), 시스템 사용의 용이성(Effort Expectancy), 타인의 영향(Social Influence), 그리고 기술적 인프라 존재 여부(Facilitation Conditions)가 비트코인의 사용동기가 된다는 것을 밝혔다. Kim(2015)은 비트코인의 가격변화와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개인의 온라인 가상화폐 사용을 분석하였는데, 어느 정도 안정된 게임화폐는 작은

규모의 주식이나 금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또한 가상화폐의 긴 역사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전망을 추정해본 결과,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거래에 의한 영향은 적을 것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실제통화를 대체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측면들은 사회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보았다. Brito & Castillo (2013)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낮은 수수료와 잠재적 빈곤 및 억압에 대항한다는 장점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오픈 시스템 결제 서비스(Open-system payment service)는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이라고 보았다. 또한 자본의 제약이 큰 국가일수록 자본이 조작될 수 있으나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에서도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는 통화라고 하였다. Kosten(2015)는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거래장부인 블록체인의 가장 큰 성과는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중으로 금융의 힘이 분산되게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연구들이다. Dowd & Hutchinson(2015)은 비트코인이 어떤 중앙은행에도 의존하지 않은 민간 금융 통화이기 때문에 기존 통화처럼 정해진 통화 정책이 전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하며 비트코인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통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양지연 외 2인(2015)은 비트코인의 거래가 완료된 이후 지출 기록의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정상적 블록체인을 통하여 타인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과 비트코인의 공공 주소를 통하여 정보가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역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점, 채굴자들의 이기적인 채굴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비트코인의 취약점으로 꼽았다. 윤성훈(2014)은 비트코인은 화폐 가치를 지지할 수 있는 자산이 존재하지 않고, 거래 참가자들의 신뢰에 의하여 화폐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신뢰가 하락하게 되면 가치가 사라질 수 있어 실물 화폐보다 더 큰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비트코인의 개선점에 주목한 논문들도 있었다. Cusumano(2014)는 비트코인의 생태계는 통화(화폐)보다는 컴퓨터로 생산되는 상품과 비슷하다고 보았으며 비트코인의 사용자가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인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사용자는 신뢰하나 상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보았다. 추가적으로 해커들에 대한 기술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Tu & Meredith(2015)는 가상화폐의 발달과 달리 법의 발달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정책 입법자는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규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Jegatheesan, et al.(2015)는 과거 전자 및 모바일 상거래가 세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예상했던 수준만큼 도달되지 못한 이유로 범용적인 디지털 통화의 부족과 엄격한 금융규제를 들었다. 따라서 디지털 화폐의 편리한 사용성과 국가 간 P2P시스템

을 통한 손쉬운 이용성이라는 장점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와 기술적 어려움들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보았다.

이처럼 기존의 논문들은 비트코인의 고유 특성이나 규제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주로 다룬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 비트코인은 새로운 화폐로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반면, 본 논문은 기존 선행연구가 다루었던 비트코인의 성질이나 법적인 문제가 아닌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창출에 초점을 두고 탐색하고자 하였다.

III. 비트코인 사용현황 사례

3.1 미국

3.1.1 비트코인에 대한 미국 정부와 기업의 반응

캘리포니아 주 은행금융국은 2014년 6월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를 이용한 지불이 합법적이라고 결정하였다(전주용·여은정, 2014). 2015년 초, 미국의 벤처기업 코인베이스(Coinbase)는 미국 24개 주로부터 비트코인거래소 개설을 허가 받았으며 현재 비트코인거래소를 운영하며 기부금을 받고 있다(양희성·권영미, 2015).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이 대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스타트업 21 Inc는 비트코인 채굴 지원을 내장한 비트코인 컴퓨터를 개발하여,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채굴하여 전자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Coinspeaker, 2015.09.22). 나아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비트코인으로 디지털 상품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소액결제시장을 열어 기존의 고정비용을 없애고 비트코인을 활용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EconoTimes, 2016.03.14). 미국 대형 보험회사중 하나인 USAA는 비트코인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회원들로 하여금 USAA의 웹사이트와 휴대폰 앱에서 자신의 비트코인 자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Cryptocoinsnews, 2016.03.15). 비트코인 급여지급 스타트업 Bitwage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Bitwage의 계좌에 연결하여 결제를 지원하고 화폐의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Coindesk, 2016.03.09). 또한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는 비트코인 ATM이 설치되어 있어 자유롭게 비트코인의 구입과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KBS 파노라마, 2014.07.18.). Coinsource 회사는 샌프란시스코에 기존의 ATM과는 달리 낮은 수수료의 비트코인 ATM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쉽게 이용하고 더 낮은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EconoTimes, 2016.03.28). 이

처럼 비트코인은 미국 일부 주에서 합법적 지불 수단으로 인정되어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도 증가하고 있다.

3.1.2 비트코인의 온라인 거래 사례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미국 기업은 소매관련 온라인 쇼핑몰인 overstock.com, 우주관련 벤처기업인 Virgin Galactic, TV쇼, 소프트웨어, 음악 등을 P2P로 직접 다운받을 수 있는 The Pirate Bay, 비트코인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팁을 지불할 수 있는 Reddit, 이베이의 자회사인 PayPal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 중에서 ChangeTip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실제 상품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고, 팁을 줄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도 'love button'을 클릭하여 비트코인으로 팁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과거에는 비트코인으로 현금인출만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스타벅스, 아이튠, 아마존을 이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Coindesk, 2015.08.28).

3.1.3 비트코인의 오프라인 거래 사례

비트코인 지불수단은 온라인 뿐 만 아니라 실제 오프라인 거래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진다. 뉴욕, 맨해튼 중심지에 있는 비트코인센터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비트코인 사용자가 모여 즉석에서 현금을 주고받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비트코인을 거래한다.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하이츠 로드(Cleveland Heights Road)는 비트코인 거리로 바뀌었다. 이곳은 상점주들이 연합하여 새로운 고객 유치를 위한 시도 및 신용카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실시하였는데 판매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미국 통화로 즉시 바꾸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신용카드와 동일한 형태로 거래를 하게 되지만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중앙시사매거진, 2014.06.18). 귀금속 판매점인 JM Bullion는 BitPay와 제휴를 통해 비트코인을 상품에 대한 대금으로 받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구매한 고객은 4%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잠재고객 유치의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Cointelegraphm, 2016.03.09).

3.1.4 기타 비트코인 활용 사례

비트코인의 활용은 단순히 상거래에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으로 역만장자가 된 로저 버(Roger Ver)는 비트코인이 등장하였을 때, 기존 유통업체들이 비트코인을 주 결제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비트코인 확산에 힘썼다(Londonlovesbusiness, 2016.07.17). 현재 국제 송금은 여러 나라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으

며,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저개발 국가일수록 수수료가 더 높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매우 저렴한 수수료로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하였다. 2016년 한 비영리 단체의 포럼 (non-profit MIT Enterprise Forum of Cambridge)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crowd funding platform)을 활용하여 기부행사를 하였는데 이 때 비트코인이 활용되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기부에 비트코인을 활용한 것은 기부가 용이하도록 한 것 뿐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실제 자신이 기부한 내용이 기부처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러한 사용을 위해 얼마의 비트코인이 사용되는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장점을 가진다(Coindesk, 2016.03.09).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비트코인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3.2 독일

3.2.1 비트코인에 대한 법안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핀테크를 활성화시킬 핵심 산업’이라 평가하며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유럽의회는 2009년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제정하였고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이를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쓰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법안 및 정책을 마련하였다(양희성, 권영미, 2015). 그 중에서 독일은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비트코인이 ‘대안 화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기반을 조금씩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8월 독일의 재무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전자 화폐나 외국환으로 분류하지 않고 독일 은행법에 따라 거래되는 금융수단이라고 정의하였고(조선Biz, 2013.12.04.), 비트코인을 1년 미만 보유하면서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였다(이동규, 2013). 또한 비트코인을 온라인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수단으로 인정하였다(조희정 외 2인, 2015). 독일 뮌헨에 소재한 Fidor은행은 2014년 11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 거래은행으로 발족되면서, 실질적인 비트코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였다. 독일 연방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는 금융법(Kreditwesengesetz) 제 1조 11항 1문에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허용된 금융상품이라고 명시하였다. 비트코인을 상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금융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것이 의무이다. 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허가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금융법 제 54조에 의해서 범죄에 해당된다(BaFin, 2013.12.19). 이처럼 독일은 금융관련 법률 규정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이익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거래 및 이전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정승영, 2015).

3.2.2 비트코인 활용 중심도시

비트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도시인구의 15%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베를린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통한 통화 환전의 낮은 수수료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활용도가 타 도시에 비해 큰 베를린은 비트코인 활용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베를린 내 여러 상점에서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하며, 온라인 거래에서도 쉽게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 (Die Welt, 2016.05.01.).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높은 베를린에는 다양한 업종의 IT 기업이 생겨나고 있는데, 9flats.com(개인주택 단기임차 온라인 플랫폼)이나 (GRUENDERSZENE, 2013.04.08) Lieferservice.de(음식배달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Ecommerce magazine, 2013.11.08). 또한 'Room77'이라는 주점은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한 소매상으로 베를린 시내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에 위치한다. 이곳에서는 매달 독일 내 비트코인 사용자들의 정기 모임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Die Welt, 2013.09.08).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베를린(Bitcoin Exchange Berlin)이라는 모임 역시 지역 주민들의 비트코인 거래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3.2.3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최근 유럽에서 가상화폐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유럽연합 가입국인 키프로스의 강제금융 방식에 대해 논의되던 시점부터이다. 유럽연합은 2013년 3월 키프로스에 예금과세를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행예금과 법정통화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스페인 역시 2013년 4월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구글에서 Bitcoin을 검색하는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김태오, 2013). 또한 2015년에는 그리스 채무불이행 사태로 인하여 자국의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낮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2015년 6월에는 비트코인을 사재기하는 그리스인들이 생기기도 하였다(아시아경제, 2015.06.30). 유럽 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독일에서는 비트코인을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 내 t3n이라는 잡지회사는 직원들에게 월급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고 있다. t3n 직원들은 각자의 월급에서 약 20유로정도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으며, 이러한 급여서비스는 2015년 11월부터 행해져 오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 급여비중은 직원들의 위험수용성향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CoinDesk, 2016.03.22.). 이렇게 독일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양한 분야에서 비트코인이 상용되고 있다.

3.3 한국

3.3.1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반응

2013년 한국은행은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가치 폭락에 주목하여 비트코인이 불안정한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미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의 파riba게트(인천시청 역점)는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한 제 1호 상점이다. 이곳을 시작으로 서울 일부에 비트코인 가맹점이 도입되었으며, 아직은 120여 곳에 불과하지만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업 '코인플러그'는 국내 최초로 국내산 비트코인 ATM을 제작 및 설치하였다. 현재 전국 지하철역과 편의점에 7000여 대가 비치되어 있다(중앙일보, 2016.01.20). 또한 원화로 산 비트코인을 다시 ATM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어플리케이션 역시 존재해 공인인증서 사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덜고 더욱 빠르게 해외 송금이 가능해졌으며 환전 수수료 역시 아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사용처와 실수요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비트코인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국내 여러 기업들 중 KB금융은 2014년9월 아시아 제1금융권으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거래소 '코인플러그'에 15억을 투자하였다. 또한 KB국민카드의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도 선보이며, 카드 포인트를 전 세계 10만여 곳(국내120여 곳)의 온·오프라인 비트코인 가맹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문화일보, 2014.10.30). 기업은행 역시 금융기술회사 코빗과 블록체인 분야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혀 기존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중앙집권화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해킹을 어렵게 하였다(미디어펜, 2016.03.10). CJ E&M의 경우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부 콘텐츠 플랫폼의 수수료를 1% 이내로 낮춰 소액결제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내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도 간편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한국경제, 2014.11.26.).

3.3.2 국내시장 비트코인 전망 및 시사점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 로저 버(Roger Ver)는 현재 소수의 투자자들로 인하여 비트코인 시장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자가 증가하여 비트코인의 사용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이러한 변동성은 점차 둔화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달러화나 유로화, 원화 대비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 수준보다 훨씬 높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는 2016년 비트코인의 가격을 최고치

로 예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이 가장 많이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이 비트코인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평가하였다(SBS CNBC, 2015.12.11). 또한 2016년 3월 4일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의 '화폐기능'을 인정하여 금융기술영역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조선비즈, 2016.03.04). 따라서 일본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소비자보호와 실질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현재 일본은 주요선진국 중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과세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거래의 수단인 것이 아닌 투자수단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 거래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이러한 상황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이미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어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화폐로서의 기능을 인정받아 비트코인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국내 비트코인 이용 현황을 미루어볼 때 짧은 기간 안에 비트코인이 대체화폐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기술 발달의 잠재력을 고려한다면 비트코인은 중요한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에서 나타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증폭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국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 즉 국가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꾸준히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과 대체화폐로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개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화폐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사례를 볼 때 국내에서 비트코인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는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관련 정책 및 규제들이 점진적이고 유연하게 적용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IV. 공유가치창출로서의 비트코인

4.1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재화를 소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공유하는 쪽으로 변화되면서 공생과 조화를 추구하고, 시장참여자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분위기로 발달하고 있다(Kaletsky, 2010). 이는 나만을 위한 소유보다 타인과 함께하는 공유 및 사용에 더욱 가치를 두는 것으로 상생과 협력적 소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강병준 ·

최무현, 2013).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협력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협력적 소비는 소유가 아닌 어떻게 이용하여 가치를 더 크게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다(이지영·여정성, 2016). 협력적 소비에 대한 예시 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을 통한 임금 지불 및 기부이다. 비트코인은 규제기관이나 관리주체와 같은 중간매체가 없이 개인 대 개인(P2P) 간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저렴하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통해 저개발 국가의 거주민에게 임금을 지불할 경우, 그리고 테러나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할 경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지원을 받는 사용자와 지원을 하는 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 협력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트코인을 활용한 기부나 후원금 사례는 세계 여러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루마니아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정치인들이 정치헌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양희성·권영미, 2015). 미국의 적십자는 2014년 비트페이라는 비트코인 결제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비트코인 기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비트페이는 비영리 조직에 비트코인으로 기부하는 사람에게는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비즈니스라인-비트허브, 2014.11.27).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사례도 있으며(비즈니스라인-비트허브, 2014.10.15.), 요하네스버그의 Invirohub이라는 에너지 관리회사는 전기료를 비트코인으로 선불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를 제조하여 납부된 금액만큼 전기를 전송한다. 약 2달러의 전기료 납부를 위해 자주 은행을 찾아가야 했던 남아프리카 한 마을의 거주자들에게 있어 비트코인을 이용한 전기료 납부결제 방식은 그들의 시간과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CoinDesk, 2014.06.03). 이처럼 비트코인은 협력적 소비를 가능하게 하여 무분별한 지출보다 공동체적 삶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4.2 사회 경제적 가치(Social Economy Value)

가상통화 비트코인의 핵심 요소는 다양한 산업에서 최소결제 단위의 제약이 없는 소액결제(Micropayment)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콘텐츠 산업에 다양화를 가져올 것이다. 신용카드나 현금을 통해 월정액 혹은 최소한의 일정 금액을 결제해야만 이용 가능 하였던 콘텐츠 결제는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면 콘텐츠 용량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나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음악의 경우 음원의 일부분만을 구매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한국 CJ E&M이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일부

콘텐츠를 결제하게 한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신문, 잡지, 서적 등의 인터넷 보급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 작가 등은 무료로 제공했던 정보를 소액 결제시스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가시성 정보가 아닌 정보의 질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다. 비트코인 레딧(www.reddit.com/r/bitcoin)에서 이용자들은 맘에 드는 정보를 제공한 다른 이용자에게 비트코인으로 팁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 결제는 수익 창출 수단이 될 수 있다. 국내 블로거들에게도 기업의 협찬이 아닌 이용자들로부터 후원을 통해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카드결제 서비스로 인한 설치비용과 수수료는 영세상인과 소비자들에게 소액카드 결제를 불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사용은 이러한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하여 영세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또한 무역을 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무신용장 결제 수수료 또는 은행 송금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해외 직접 구매 시에도 개별 소비자들 역시 환율차이로 인한 손실을 낮출 수 있다.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면 무엇보다 신사업과 서비스가 다수 탄생할 것이다. 비트코인 송금 시스템 및 결제시스템과 비트코인 환전 서비스도 다양한 곳에 설치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새로운 벤처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으며, 비트코인과 그 기술들을 활용한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의 투자와 탄생은 결국 사회의 진보와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 예로 '킵 스타터(Kickstarter)'와 '인디고고(Indiegogo)'와 같은 서비스에서 개인의 아이디어 지원을 통해 상품화 할 수 있고, 기존 산업구조에서는 만들기 힘들었던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신제품들을 탄생시킬 수 있다. 금융 상품에서도 비트코인을 활용한 투자 상품이 생겨날 것이며,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마일리지를 비트코인으로 통합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사용 기간에 제약이 있었던 기존 포인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변환을 통해 좀 더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나 시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관광 사업에 활용할 경우 외국인들에게 현지 통화를 바꾸고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여행하고 남은 돈에 대한 환전의 불편함도 사라진다.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없이 결제가 가능하며 수수료도 저렴하다. 독일의 베를린과, 미국의 클리블랜드처럼 국내에도 하나의 문화 관광 차원으로 비트코인거리를 만들고 한옥마을 및 한복체험 등을 사전에 비트코인을 통해 결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빈곤 국가나 자선단체에게 기부 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전달 할 수 있으며, 선거나 정치자금에도 자신의 의명성을 지키며 소신 있는 기부와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4.3 디지털 네트워크(Digital Network)

언제 어디서든 돈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미래의 결제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인 제프가직(Jeff Garzik)은 비트코인을 데이터라고 정의하였다(김진화, 2013). 비트코인을 보낸 것은 정보를 보낸 것이고 이를 응용한 개인 간 주식 거래, 부동산 거래, 선물, 옵션 등 고도의 거래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거래의 확장은 P2P거래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금융과 결합하면서 핀테크 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공유경제를 창출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상거래 사이트인 에어비엔비(AirBNB)와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우버(Uber) 등에서도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거래에서 비트코인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더 주목받는 이유는 거래의 투명성이다. 비트코인의 핵심기술은 블록체인이라는 거래기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거래 데이터는 특정 서버에서 단독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컴퓨터가 구성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가 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다. 이러한 P2P구조로 블록체인 안에는 과거 거래 내역이 전부 기록되어 이중거래나 위조화폐 거래를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내용 조작이 불가능한 정당한 거래로써 화폐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받는 사람은 그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통해 정당한 보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은행과 달리 거래 기록을 유지하고 공표함으로써, 비트코인 보유자만이 보유범위 내에서 거래할 수 있고 의도한 상대방만 받게 함으로 이중사용도 불가능 하게 하는 것이다. 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상거래에 있어서 중요성을 시사한다. 위조지폐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중 지불 혹은 거짓 거래 기록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상거래에서 화폐의 안전을 담보해준다. 즉 화폐를 갖고 조작을 하거나 사기를 하는 범죄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참가하거나 이탈할 수 있는 평등적이고 수평적 구조이다. 따라서 특별한 신용이 요구되거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은행시스템과 달리 자유롭게 비트코인 지갑을 생성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분산형 시스템은 해커들의 공격으로부터 강하며 현실의 화폐시스템과 달리 붕괴될 위험이 적다. 이러한 자생적 커뮤니티와 생태계의 특징이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은 돈으로서 교환의 매개로 작용될 거란 사용자간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다. 더욱이 특정 국가나 기업에 의해 독점되거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는 중립적 상태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더욱 신뢰를 보내게 되었다.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유지하며 협력한다는 기존 경제학의 개념에 부합한다. 정부 규제 없이 경제 주체들 각자가 '이익 극대화'라는 이기적인 동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원의 배분이 바람직하도록 실현시킬 수 있게 하며 이것의 바탕은 인터넷과 다양한 정보기술들이 결합하여 나온 결과인 것이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비트코인의 활성화는 사람들에게 경제주체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합리적인 이해와 계산을 통한 서로간의 이익 극대화를 낳게 해 주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화폐 금융시스템 및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트코인처럼 디지털로 개방된 경제 시스템은 공유가치에 한층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기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MBN 뉴스, 2015.10.19).

V. 결론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화폐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지폐는 미국, 호주, 영국과 같은 시장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조만간 현물 화폐가 없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기존 전자화폐나 포인트와 달리 기업이나 개인 간 자유롭게 유통되며 그 값이 사라지지 않는 점에서 현금 통화와 같다. 반면 중앙기관에 의해 관리가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현금 통화와는 달리 중재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 시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다. 또한 가상화폐 특성상 지역이나 시간과 상관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빠르게 송금할 수 있으며, 무국적의 비트코인은 세계 어디로든 송금이 가능하고 환율 스프레드를 피할 수 있다. 소액거래의 부담이 사라지고 각국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비트코인은 새로운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매력적이다. 따라서 이 가상화폐는 기존의 화폐 금융시스템 및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디지털로 개방된 경제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이 생성하는 공유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트코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공유가치 창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협력적 소비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비트코인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국제송금과 같이 여러 금융체계를 거쳐야 하는 시스템에서 생

기는 수수료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비트코인은 규제기관이나 관리주체와 같은 중간매체가 없이 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거나 그 값은 매우 저렴하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통한 기부나 저개발 국가의 거주민에게 임금지불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으로 작용해 협력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경제적 가치이다. 소액결제 가능한 비트코인을 통해서 소액 콘텐츠 시장의 확장과 소상공인들의 판매영역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과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벤처기업들의 등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가치 창출이다. 비트코인은 거래자간에 하나의 디지털 정보를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응용한 개인 간 주식 거래, 부동산거래, 선물, 옵션 등의 P2P거래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해주며 이중 지불을 방지하고 화폐의 투명성을 보장 할 수 있다. 비트코인 사용자는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참가하거나 이탈 할 수 있으므로 어느 누구에게 특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평등성을 제공하며 나아가 경제 민주화를 달성 할 수 있다. 사용자 간 자생적 커뮤니티와 생태계의 특징은 서로 간에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해주며,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주도적 참여와 이익의 극대화를 낳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비트코인은 재무설계에서도 하나의 선택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계의 금융권 선택에 있어 협력적 소비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 예로 대출에 있어 비트코인을 활용한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신용계약이나 금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비트코인 시장이 안정화 된다면 가계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높다. 사회경제적 가치로서 비트코인이 각종 포인트의 통합 시스템에 작용될 수 있다면 가계는 소멸될 돈들을 모아 저축, 공과금 지불 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네트워크는 가계의 새로운 경제창출 창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에도 제2의 직업을 고민해야 하는 이 시대에 가계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단순히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상에서의 수입창출은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할 것이며 비트코인이 활용될 수 있다.

공유가치창출은 가상화폐라는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유가치창출의 가능성을 이해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업의 관심, 정부의 지원 등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통합적인 노력이 함께 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 비트코인을 통해 금융수수료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활용하여 개선 가능한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기업 스스로가 창출하고자 하는 사

회적 가치의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비트코인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보다 쉽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한 고심이 필요하다. 소비자 역시 자신이 공유가치 창출의 주체임을 인지하고 비트코인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상화폐는 글로벌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미미하나, 웹 서비스 회사와 같이 수수료 비용을 축소하려는 가맹점들을 중심으로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이 단순히 지불 시스템의 하나로 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온라인의 발달 및 금융구조의 비판,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의 서민들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비트코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성장하고 정착할 것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도입에 있어서 정부는 사전에 세법과 같은 법적인 규제와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마련하여 불법자금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명확히 인식 하도록 하여, 투기성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역시 가능하다. 또한 서민층의 접근이 용이하며 스마트폰 속 어플을 통해서도 손쉽게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 이 금융거래의 주요 선택 대안이었다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기존의 금융시스템이 시도할 수 없는 참여적인 금융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 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인 비트코인이 기존에 정착되어 있는 지불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불수단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상화폐는 우리 사회에 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좀 더 편리한 방식의 삶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상화폐를 통해서 수동적인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생산자로서 공유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병준·최무현(2013), “공유경제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책개발연구**, 13(1), 143-170.
- 김자봉(2014), “KIP VIP 시리즈-Vision, Lnsight and Policy: 2014-11: 비트코인 거래 메커니즘의 분석과 시사점,” **금융VIP시리즈**, 2014(11), 1-82.

- 김진화(2013), **NEXT MONEY 비트코인**, 서울: 부키.
- 김태오(2013), “가상화폐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Bitcoin과 Linden Dollar를 중심으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53, 33-64.
- 나종연·김학균·김학진·이유리·이진명(2014), “공유가치창출(CSV) 시대의 소비자 연구 제안,” **소비자학회**, 25(3), 141-162.
- 박병진·김도희(2013), “공유가치창출(CSV) 관점에서 본 CJ제일제당의 동반성장 추진 사례,” **경영교육연구**, 17(2), 73-99.
- 박재석·김민진·황병일(2016), “핀테크의 발전 배경과 주요 동향,”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33(2), 52-58.
- 송경석(2014),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른 금융부문의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 탐색,”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1(4), 485-499.
- 안명옥·하윤희 역(2012), **공유경제**(Gold Lorna(2010)), 서울:조운커뮤니케이션
- 양지연·김소희·김윤정(2015), “비트코인 취약점 및 현 대응방안의 한계 분석,”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6), 1013-1015.
- 양희성·권영미(2015), “인터넷 화폐 - 비트코인 동향,”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19(1), 28-36.
- 윤성훈(2014),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KiRi Weekly(주간포커스)**, 275, 1-4.
- 이강(2014), “비트코인에 관한 세법상 쟁점,” **가천법학**, 7(4), 163-193.
- 이동규(2013),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서울: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 이영일·김영신(2015), “A Study on CSV of Social Economy and Consumer Perspective,” **한국유통학회**, 13-12, 53-63.
- 이우석, 홍보경(2015),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 과제,” **영산법률논총**, 12(2), 219-256.
- 이지영·여정성(2016), “협력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 참여와 확대 방안,”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2(1), 95-118.
- 이현정(2015), “가상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21(3), 303-338.
- 임현진(2015), **화폐혁명**, 서울: 남추.
- 전병준(2014), “온라인에서의 공유가치창출,” **전자무역연구**, 12(4), 77-95.
- 전주용·여은정(2014), “비트코인의 이해,” **한국경영학회**, 18(4), 211-239.
- 정승영(2015),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제 비트코인(Bitcoin)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31(1), 85-140.

- 조희정 · 신경식 · 임선우(2015), “네트워크 사회에서 가상화폐의 화폐권력구조에 대한 영향__ 비트코인의 이념, 제도, 이익을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11(1), 47-87.
- Böckmann, M. (2013), The Shared Economy: It is time to start caring about sharing: value creating factors in the shared economy, *In 1st IBA BT Conference*, 1.
- Brito, J. and Castillo, A.(2013), BITCOIN A PRIMER FOR POLICYMAKERS, *Policy*, 29(4), 3-12.
- Cusumano, M. A.(2014), The Bitcoin Ecosystem. *Communications of the ACM*, 57(10), 22-24.
- David Descôteaux(2014), Bitcoin More Than a Currency, a potential for innovation, *Regulation*.
- Dowd, K., and Hutchinson, M.(2015), Bitcoin will bite the dust *Cato Journal*, 35(2), 357-382.
- Eikmanns, B. C., and Sandner, P. G.(2015), Bitcoin: The Next Revolution in International Payment Processing? An Empirical Analysis of Potential Use Cases. *An Empirical Analysis of Potential Use Cases (April 22, 2015)*.
- Grinberg, R.(2011), Bitcoin: an innovative alternative digital currency, *Hastings Science & Technology Law Journal*, 4, 160.
- Jegatheesan, S., Ahmed, S., Chamney, A., and El-Kadri, N.(2015). Is a global virtual currency with universal acceptance feasible? *arXiv preprint arXiv:1502.02084*.
- Kaletsky, A.(2010), Capitalism 4.0: The Birth of a New Economy, *Bloombury Lond, Berlin and New York*.
- King, B.(2014). *Breaking Banks: The Innovators, Rogues, and Strategists Rebooting Banking*, John Wiley & Sons.
- Kim, T. (2015), The Predecessors of Bitcoin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Prospect of Virtual Currencies, *Plos ONE*, 10(4), 1-18.
- Kosten, D. (2015), Bitcoin Mission Statement. Or What Does It Mean Sharing Economy and Distributed Trust?. Or What Does It Mean Sharing Economy and Distributed Trust,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684256
- Nakamoto, S.(2008),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http://bitcoin.org/bitcoin.pdf>
- Porter, M. E. and M. R. Kramer(2011), Creating shared value: How to reinvent Capitalism, *Harvard Business Review*, Jan-Feb, 1-17.

Tu, K. V., and Meredith, M. W.(2015), Rethinking virtual currency regulation in the bitcoin age, *Washington Law Review*, 90, 271-347.

경향신문(2016.05.02), 비트코인 개발자는 ‘호주 IT보안전문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22215005&code=970207

문화일보(2014.10.30), KB금융 ‘선도자 전략’으로 승부… 비트코인 투자·핀테크 벤처 육성,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3001071903011001>

미디어펜(2016.03.10), 기업은행, 비트코인 기업 코빗과 업무협약, <http://www.mediapen.com/news/view/129620>

비즈니스라인-비트허브(2014.11.27), 비트코인으로 사랑을 전하다..美 적십자, <http://www.bithub.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2>

비즈니스라인-비트허브(2014.10.15.), 에볼라 확산 시에라리온, 비트코인 기부 받는다, <http://www.bithub.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4>

아시아경제(2015.06.30), 비트코인 사재기하는 그리스인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3010552028977>

조선비즈(2013.12.04). 비트코인 받는 상점 전 세계 1370여곳…中 투자 거래 급증.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04/2013120400829.html

조선비즈(2016.01.26), 틱톡 “다음 세대는 현금이 뭔지 모르게 될 것,”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12/2015111203846.html

조선비즈(2016.03.04), 日 정부, 가상통화 ‘비트코인’ 공식 결제수단으로 인정,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4/2016030402580.html

중앙시사매거진(2014.06.18), 신용카드 수수료를 피하려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상점들, <http://blog.jmagazine.co.kr/39>

중앙일보(2016.01.20), 비트코인 매입. → ATM 원화 송금…계좌 없이 초고속 거래, <http://news.joins.com/article/19440850>

한국경제(2014.11.26), CJ E&M, 국내 대기업 최초 비트코인 결제 도입,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12618111>

KBS 파노라마(2014.07.18). KBS panorama - 디지털 미래 경제 2편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도전, http://www.kbs.co.kr/end_program/1tv/sisa/panorama/vod/preview/2268315_68401.html

MBN 뉴스(2015.10.19), 16회 세계지식포럼 20일 개막…“車·집 안사고 공유하는 新경제시대,”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2602749

SBS CNBC(2015.12.11), 비트코인, 2016년에 가격 최고치에 달할 것,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73484>

BaFin(2013.12.19), Bitcoins: Aufsichtliche Bewertung und Risiken für Nutzer, http://www.bafin.de/SharedDocs/Veroeffentlichungen/DE/Fachartikel/2014/fa__bj__1401__bitcoins.html?nn=3803924#doc4689532bodyText1

CoinDesk(2014.06.03.), Bitcoin Smart Meters Could Revolutionise How South Africans Pay for Power, <http://www.coindesk.com/south-african-smart-meters-incorporate-bitcoin-prepaid-electricity/>

CoinDesk(2015.08.28), ChangeTip Users Can Now Turn Bitcoin Tips into Gift Cards, <http://www.coindesk.com/changetip-users-can-now-turn-bitcoin-tips-into-gift-cards/>

CoinDesk(2016.01.28), *State of Bitcoin and Blockchain 2016: Blockchain Hits Critical Mass*, <http://www.coindesk.com/state-of-bitcoin-blockchain-2016/>

CoinDesk(2016.03.09), Bitwage Now Lets Employers Pay Workers With Debit and Credit Cards, <http://www.coindesk.com/bitcoin-payroll-startup-bitwage-adds-card-payments-option-launches-api/>

CoinDesk(2016.03.09), How Bitcoin Brought Electricity to a South African School, <http://www.coindesk.com/south-african-primary-school-blockchain/>

CoinDesk(2016.03.22), Roger Ver Issues \$100k Bitcoin Bounty for Bernie Sanders Debate, <http://www.coindesk.com/roger-ver-bernie-sanders-100000-donation-charity/>

CoinDesk(2016.03.22.), German Tech Magazine t3n Trials Employee Bitcoin Payroll, <http://www.coindesk.com/german-tech-magazine-trials-employee-bitcoin-payroll/>

CoinSpeaker(2015.09.22), Startup 21 Inc. Announces the First Product, a 'Bitcoin Computer', <http://www.coinspeaker.com/2015/09/22/starup-21-inc-announces-the-first-product-bitcoin-computer-12042/>

Cointelegraph(2016.03.09), Precious Metals Giant JM Bullion Now Accepts Bitcoin, <http://cointelegraph.com/news/precious-metals-giant-jm-bullion-now-accepts-bitcoin>

Cryptocoinsnews(2016.03.15), USAA Integrates Bitcoin Access to All Member Accounts, <https://www.cryptocoinsnews.com/usaa-integrates-bitcoin-access-member-accounts/>

Die Welt(2013.09.08.), Wie Berlin zur weltweiten Bitcoin-Hauptstadt wurde, <http://www.welt.de/finanzen/geldanlage/article119820142/Wie-Berlin-zur-weltweiten-Bitcoin-Hauptstadt-wurde.html>

Die Welt(2015.10.22), Blockchain ist die Revolution des Geldverkehrs, <http://www.welt.de/>

wirtschaft/article147906848/Blockchain-ist-die-Revolution-des-Geldverkehrs.html

Die Welt(2016.05.01), Das menschlichere Silicon Vally liegt in Deutschland, <http://www.welt.de/wirtschaft/article154915491/Das-menschlichere-Silicon-Valley-liegt-in-Deutschland.html>

Ecommerce magazin(2013.11.08), Lieferservice.de: Essen bestellen mit Bitcoins, <http://www.e-commerce-magazin.de/lieferservicede-essen-bestellen-mit-bitcoins>

EconoTimes(2016.03.14), Bitcoin Startup 21 Inc Launches Micropayments Marketplace, <http://www.econotimes.com/Bitcoin-Startup-21-Inc-Launches-Micropayments-Marketplace-177705>

EconoTimes(2016.03.28), Coinsource Installs Low Fee Bitcoin ATM In San Francisco, <http://www.econotimes.com/Coinsource-Installs-Low-Fee-Bitcoin-ATM-In-San-Francisco-185104>

GRUENDERSZENE(2013.04.08), 9flats akzeptiert Bitcoin, <http://www.gruenderszene.de/news/9flats-akzeptiert-bitcoins>

Handelsblatt(2015.10.22), Bitcoins bleiben steuerfrei, <http://www.handelsblatt.com/finanzen/maerkte/devisen-rohstoffe/cyber-waehrung-bitcoins-bleiben-steuerfrei/12483674.html>

Londonlovesbusiness(2016.07.17), Meet “Bitcoin Jesus” Roger Ver, the millionaire who distributes free Bitcoins, <http://www.londonlovesbusiness.com/business-news/tech/meet-bitcoin-jesus-roger-ver-the-millionaire-who-distributes-free-bitcoins/5951.article>

NYtimes(2015.09.21.), The Benefits of Allowing Bitcoin to Flourish, http://www.nytimes.com/2015/09/22/business/dealbook/the-benefits-of-allowing-bitcoin-to-flourish.html?__r=0

☐ 투 고 일: 2016년 7월 3일

☐ 심 사 일: 2016년 8월 19일

☐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22일

A Review of Bitcoin use in Korea, U.S., and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Creating Shared Value

Kyung-Mi Lee* · Eun-Hee Koh** · So-Hyun Joo***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use of the Bitcoin and its implications for creating shared valu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financial industry experienced an increasing need for newer services, one of which is the cyber currency. The Bitcoin, a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cyber currencies, has sever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at can provide insights into the creation of shared value. To explore the use and implications of the Bitcoin,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literature, both academic and non-academic.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whether the Bitcoin can help establish a new economic market and develop the economy for ordinary people.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meaning of creating shared value by comparing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ith Korea.

The Bitcoin is issued via mining in fixed amounts and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currencies which are subject to inflation. Fees can be reduced due to the use of direct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When the Internet is operating, it is traded freely without any time and space constraints. All of the transactions would be shown to the public and there could be an opportunity for people who do not have bank accounts to participate in financial dealing. The Bitcoin could be helpful in the places, which where depreciated in the value of the currency is depreciated or has a weak capital market (Brito, J., Castillo, A., 2013). However, transactions, which abuse the guarantee of anonymity

* Graduate student, Consumer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Consumer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 Professor, Consumer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of the Bitcoin, could happen. It is also possible to use the Bitcoin in money laundering, drug trafficking and tax evasion, and it could be affected by speculation, hacking and cyber terror.

There are three implications of the Bitcoin regards the creation of shared value: cooperative consumption, socio-economic value, and creating value through a digital network. The consumption value, which is shifted from possession to sharing, seeks coexistence and harmony. The Bitcoin promotes the ordinary people's economy, enables cooperative consumption, expands the small content market, and extends retailers' territories. Tradespeople don't have to pay commissions to credit card companies and bitcoin-related businesses will therefore appear. The network vitalizes peer-to-peer transactions, guarantees the transparency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and prevents double payments.

The amount of virtual money used in global transactions is insignificant, but its distribution is spreading rapidly through the franchises that are trying to reduce commissions. As of now, consumers can establish a participatory financial network through the Bitcoin.

Key words: virtual money, bitcoin, peer-to-peer, creating shared value, fintech

